

언어의 힘

오승은

(이 글은 오승은 씨가 버츄 프로젝트 워크샵에서 느낀 체험담입니다.)

버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1997년 한 미국인 친구로부터였다. 8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에게 ‘버츄(미덕)’란 단어 자체가 별로 흥미롭게 들리지 않았다. ‘웬 도덕 교육? 그런데 왜 서양인들이 갑자기 윤리 도덕에 관심을 갖지? 도덕이 설교한다고 몸에 배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과 서양 학생들이 도덕 교육에 대해 비상한 열의를 보이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런 뒷 배경을 안고 나는 2003년도에 연세대에서 열린 대규모 버츄 프로젝트 워크샵에 참석하게 되었다.

버츄 프로젝트 워크샵은 강의와 각종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

의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설교와는 관련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활동도 주로 모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버츄 프로젝트 워크샵은 심리 프로그램에 가까웠다. 즉 새로운 형태의 만남 집단(encounter group)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 심리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인간을 미덕의 보석이 묻혀 있는 광산같은 존재라는 전제였다. 인간의 본성을 모든 미덕의 총합으로 여기기에 5가지 전략이라는 교육 방법론을 통해 미덕의 보석을 캐는, 즉 정신적으로 성장을 시킨다는 개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왜냐면 지금까지 미덕의 배양이 주로 지적인

*버추 프로젝트의 진가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누가 말했든가,
“상(相)이 없이 매사 깨끗한 눈과 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첫 걸음”이라고*

데에 치우쳤다면, 버추 프로젝트에 서는 말을 사용할 때 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보여준 미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원칙의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지해 주기 때문이었다. 또 항상 정신적인 감수성이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권위의 행사를 인간의 성장이라는 교육 목표에만 쓰도록 하며, 또 협의를 통해 미덕을 바탕으로 한 생활 규칙을 세워 갈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활동은 “수치심 주기에서 미덕의 이름 부르기”였다. 이 활동은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칭했던 말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의식으로 끌어 올려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하면서 과거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처음에는 별로 생

각나는 것이 없다가 갑자기 일요일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그것은 내 방이 더럽고, 내 머리카락으로 온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부모님이 야단치셨던 기억이었다. 나는 독서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일요일 아침만 되면 집이 늘 시끄러웠다. 되돌아켜 보면 우리 집은 언제나 티 없이 깨끗했고 어린 나로서는 이렇게 깨끗한데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갔고, 그래서 “네 방은 왜 이렇게 더럽니, 집안이 온통 네 머리카락뿐이야!” 라는 말을 나에게 대한 비난으로만 해석했다. 그런데 부모님의 진짜 의도를 미덕의 하나로 찾아서(청결)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자 미스테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즉 내가 야단맞은 시점에는 이미 항상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그런 상태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치우시고 며

칠 뒤 일요일에 비난과 함께 화를 나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듬원 중에는 사춘기 아들을 두신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게 바로 자기 문제이자, 자기 아들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하면 ‘청결’이란 미덕을 연마할 수 있나”라는 협의를 하게 되었다. 이 협의는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 하는 도중에, 그리고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이 미덕의 언어로 칭찬해주는 도중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 ‘부모님께서 미덕의 언어를 써서 긍정적으로 표현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얼핏 스쳤지만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과거가 더 이상 내가 기억하는 과거가 아닌 형태로 재구성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버추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미덕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운 도덕 교육

과는 다른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미덕을 보도록 노력하면서 언어의 사용에 좀 더 민감해지고 긍정적이 되는 것이다. 또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일도 다른 사람의 지적을 통해 미덕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점에서, 매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는 것도 느꼈다.

나에게 버추 프로젝트를 처음 알려준 친구의 열정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 내가 한국에서 유교식 교육을 받아 미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편견으로 작용하여 버추 프로젝트의 진가를 알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누가 말했든가, “상(相)이 없이 매사 깨끗한 눈과 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첫 걸음”이라고. 

